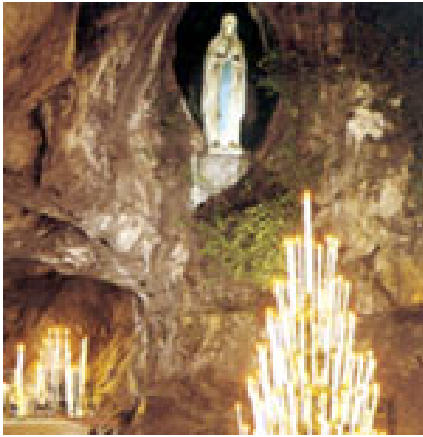


루르드의 성모님



루르드는 프랑스 남부, 피레네산 기슭에 있는 인구 약 1만 7,000명의 마을이다. 1858년 2월 11일, 이곳 가브 강가에 있는 동굴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셨다. 벨라뎃다 수비르라는 한 가냘픈, 그러나 마음씨 곱고 효성스러우며 신앙심 깊은 소녀 앞에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11일부터, 14일, 18일, 19일, 20일, 21일, 23일등 발현은 계속되었으며, 열 한 번 째 발현 때 이곳에 성당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다. 25일에는 발현하신 자리에 샘이 솟았는데, 28일에 눈병을 앓던 남자가 그 샘물로 눈을 씻자, 당장에 깨끗이 나왔다. 7월 16일에 열여덟번째의 마지막 발현이 있었는데, 샘물이 잇달아 기적을 나타냈다.

1) 성모 발현과 메시지

벨라뎃다가 11-12세 무렵 집안이 기울어 땀감을 구하러 개울을 건너려고 신발을 벗는데,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에 놀라 두리번거리자, 동굴 입구에 있는 찰레와 들풀이 크게 흔들리는 것 같더니, 동굴 속에서 황금빛 구름이 피어오르면서, 젊고 아름다운 귀부인의 모습이 똑똑히 떠올랐다. 귀부인은 새하얗고 혈령한 옷을 입고, 머리에서 어깨에 걸쳐서 흰 베일을 쓰고, 옥색 띠를 매고 있었다. 오른쪽 손목에는, 금빛사슬에, 커다란 흰 구슬이 꿰인 로사리오를 늘어뜨리고, 그녀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던졌다. 벨라뎃다가 열심히 로사리오를 굴리며 기도를 하자, 귀부인도 로사리오를 하나씩 굴렸다. 로사리오의 기도를 외고 있을 때, 귀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동굴 속으로 사라졌다. 발현 기간 동안 성모 마리아는 매번 벨라뎃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다.

8일째인 2월 24일 수요일에 "회개하시오.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오. 죄인의 회개를 위한 상징으로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손가락으로 샘물의 원천을 가리키며 그 물을 마시고 씻도록 하였다.

13일째인 3월 2일 화요일에는 "사제들에게 전해 이 곳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게 하고, 이곳에 성당을 짓게 하시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이야기는 곧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 이 '동굴의 여인'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곧 사람들은 흩어져 갔다.

3월 25일 목요일 아침, 벨라뎃다가 다시 동굴로 갔을 때 성모 마리아를 볼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 네 번에 걸쳐 반복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던 이 성모마리아는 열 여섯 번째의 발현 때 그녀에게 고했다.(Immaculata Conception)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라고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벨라뎃다는 곧바로 마을의 주임 신부에게 보고하였다. 이 발현이 있기 4년 전인 1854년에 이미 당시의 교황 비오 9세는 동정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믿을 교리로 발표하였으나, 일반 신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벨라뎃다는 전세계에 루르드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의 전령자가 된 것이다.

이후 그녀는 4월 7일 수요일과 7월 16일 금요일에 다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볼 수 있었는데, 4월 7일에는 촛불이 벨라뎃다의 손가락에서 오랫동안 탔지만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기적이 있었고, 이 일은 7월 16일에 다시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 7월16일 발현에 대해서는 그녀가 자세하게 언급하기를 회피하여 아직까지 비밀로 되어있다. 이러한 그녀의 증언, 기도와 회개를 통해 1862년 1월 18일 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로랑스 주교는 교구 신자들에게 '루르드 동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의 소망에 응답하기 위한 성당을 동굴 위에 건립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성직자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벨라뎃다와 동굴을 보기 위하여 루르드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루르드에는 1868년 5월에 첫 번째 지하성당이, 이어서 제2, 제3의 성당이 차례로 세워졌다.

2) 성모님 발현동굴

동정 성모께서 1858년 2월 11일 부터 7월 16일 사이에 벨라뎃다 수비루에게 18번 나타나셨던 곳이다. 1864년 4월 4일에 축성된 이 성모상은 마씨비에유 동굴에 발현 시와 같은 모습으로 안치되어 있다. 성모상 밑에는 감실이 있어, 성체를 모셔 놓았고, 제대 원편 동굴 안에 자물쇠로 잠겨진 돌판 아래에는 1858년 2월 아홉 번째 발현 당시의 성모님의 말씀에 따라 벨라뎃다가 땅을 파헤쳤을 때 솟아올랐던 샘이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모님께서는 피레네 말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벨라뎃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셨다.

제대 왼쪽 동굴 안편에 자물쇠로 잠겨진 돌판아래에는 1858년 2월 25일 9번째 발현당시에 성모님의 말씀에 따라 벨라뎃다가 땅을 파헤쳤을 때 솟아 올랐던 샘이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모님께서 피레네 발로 "나는 원죄없이 잉태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벨라뎃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셨다.

3) 기적수

동굴 안에 자물쇠로 잠겨진 돌판 아래에 1858년 2월 25일, 9번째 발현 당시의 성모님의 말씀을 따라 벨라뎃다가 땅을 파헤쳤을 때 솟아올랐던 샘이 있다. 그리고 벨라뎃다는 "마시고 거기서 씻어라"하신 성모님의 말씀에 순명하였다.

4) 목욕실

가브강을 따라 동굴을 지나가면 샘물로 많은 순례객들이 씻을 수 있도록 1955년에 다시 지은 목욕실이 있다.

5) 대성당 (무염시대 성당)

"여기에 성당을 짓도록 하라"고 하신 성모님의 요청에 의해 지어진 것이며, 성당 제대는 성모님 발현 장소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성당 양쪽의 유리창은 발현 당시부터 1876년 루르드 성모상의 역사까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또 좀 더 위쪽 유리창에는 세사태초부터 교황 비오 9세가 성모무염시대 신비를 정식 교의(믿을 교리)로 발표하기까지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1862년 처음으로 구상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대성전은 13세기 고딕 양식 설계로 이루어졌는데, 1871년에 낙성되고 1876년에 축성되었다. 고딕양식의 종루는 그 높이가 지상 70m에 이르며, 금색이 칠해진 중심부는 성모마리아가 벨라뎃다에게 원죄 없는 잉태를 알려 준 말씀이 문자로 새겨져 있다. 입구 중앙에는 왕관을 쓴 루르드의 성모상이 있으며, 성당 후면 부에는 여러 개의 소성당이 있다. 성당의 회중석과 중심부에는 성모마리아의 일생이, 소성당에는 루르드에서의 발현?순례?벨라뎃다의 일생이 그려진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다.

6) 로사리오 대성당

신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이 성당은 성모님 발현 후 3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완성되었는데, 항상 묵주를 손에 들고 벨라뎃다에게 나타나신 동정 성모님을 위해 특별히 로사리오 대성당(매괴의 대성당)으로 봉헌된 곳이다. 이 성당은 1901년 묵주의 15현의를 뜻하는 작은 15개의 성당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 성당에서 성모님 신비에 대해 묵상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당 내부는 아무런 지주나 기둥이 없이 건축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물고기 또는 밀알 모양으로 설계되었다.

7) 십자가의 길

1912년 1,530m의 거리를 두고 언덕 위에 십자가의 길이 만들어졌다. 각처마다 쇠로 조각된 2m 높이의 상들이 있다. 누구나 이 언덕의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대사를 얻어 은총의 상태에서 거룩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 또 한편 병자 순례단을 위한 십자가의 길은 가브강을 따라 목욕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